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4 202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24 / 4

시절 인연	02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3
법정 스님 편지	06	비 개이고 아침 햇살 가지 끝에 눈부시네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08	방생에 대해서
법정 스님 따라 하기	13	극복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16	무상승無上勝 장자
다실에서 / 류시화 시인의 시	20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21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24년 4월 1일 발행 / 통권 350호 / 등록일 1999년 6월 23일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발행 및 편집인 덕조 / 기획 편집 홍정근

발행처 (사)맑고 향기롭게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팩스 741-4698

디자인 인쇄 디자인나경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대표메일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법정 스님에 의해 창간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팩스 (02)3672-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대표메일 kilsangsa@hanmail.net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 법정 스님 2000년 3월 경전반 강의 3

텔레비전과 신문을 무조건 멀리하라.

요즘 사람들은 텔레비전교의 신도가 됐습니다. 하루도 못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연속극 안 보면 완전히 그날 무슨 헛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9시 뉴스 안 보면 세상에 뒤쳐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습관성 의약품, 습관성 마약과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생활의 정보 중 하나이니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안 보겠다는 오기도 필요합니다.

보나 마나 요즈음 선거철이라 ‘나 잘났고, 너 도둑놈이다’라면서 얼마나 떠듭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안방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괜히 우리를 어지럽히고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밖에 나와보면, 볼 것도 없고 또 정치인들이 말하는 소리나 하는 짓들을 보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시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주부들이 방송 모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조용히 책을 읽는다든가, 앉아서 예전에 써둔 일기장을 들추어 보는 일이 더 창조적이고 생산적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무엇인가에 휩쓸리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다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도 최선에 가까울 것입니다.

풀과 벌레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삶다운 삶을 살아야 죽음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는 순간순간 죽어갑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노병사(生老病死)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생로병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일일일야(一日日夜 만사만생萬死萬生)’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룻낮과 하룻밤 사이에 만 번 죽고 만 번 산다’라는 말은 우리 사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앞에 삶의 종점, 죽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우리를 받쳐주고 있으므로 순간순간 사는 일이 새로운 것입니다.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끝으로서 진짜 끝은 아닙니다. 내가 한 생을 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대차 대조 관계를 생각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향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통하여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진 여건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일반 생물과 일반 동물과 다를 게 하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몸을 버리게 된다는

엄숙한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순간순간 사는 일 자체가 소홀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하루하루 사는 일 자체가 즐겁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친구 간이든, 부부지간이든 혹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마음의 고요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상대방 탓을 할 게 아니고 내 쪽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키게 되면 메아리가 상대방한테 울리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챙기지 말고, 내 생각을 다 쉬어버리고 오히려 조금 못마땅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단혔던 마음이 열립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늘 상대방한테 허물을 찾지만, 신앙을 갖는 사람은 '내 탓이야'라고 합니다. 그것은 위선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쓰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돌이켜서 마음을 쉬어버리면 사방에 그 메아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묘한 그 마음의 통로입니다. 마음의 기능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고요히 자리에 앉으라고 했었는데, 허리를 쭉 펴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생각의 움직임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있건 반만 뜨고 있건 가만히 혼자 앉아 있게 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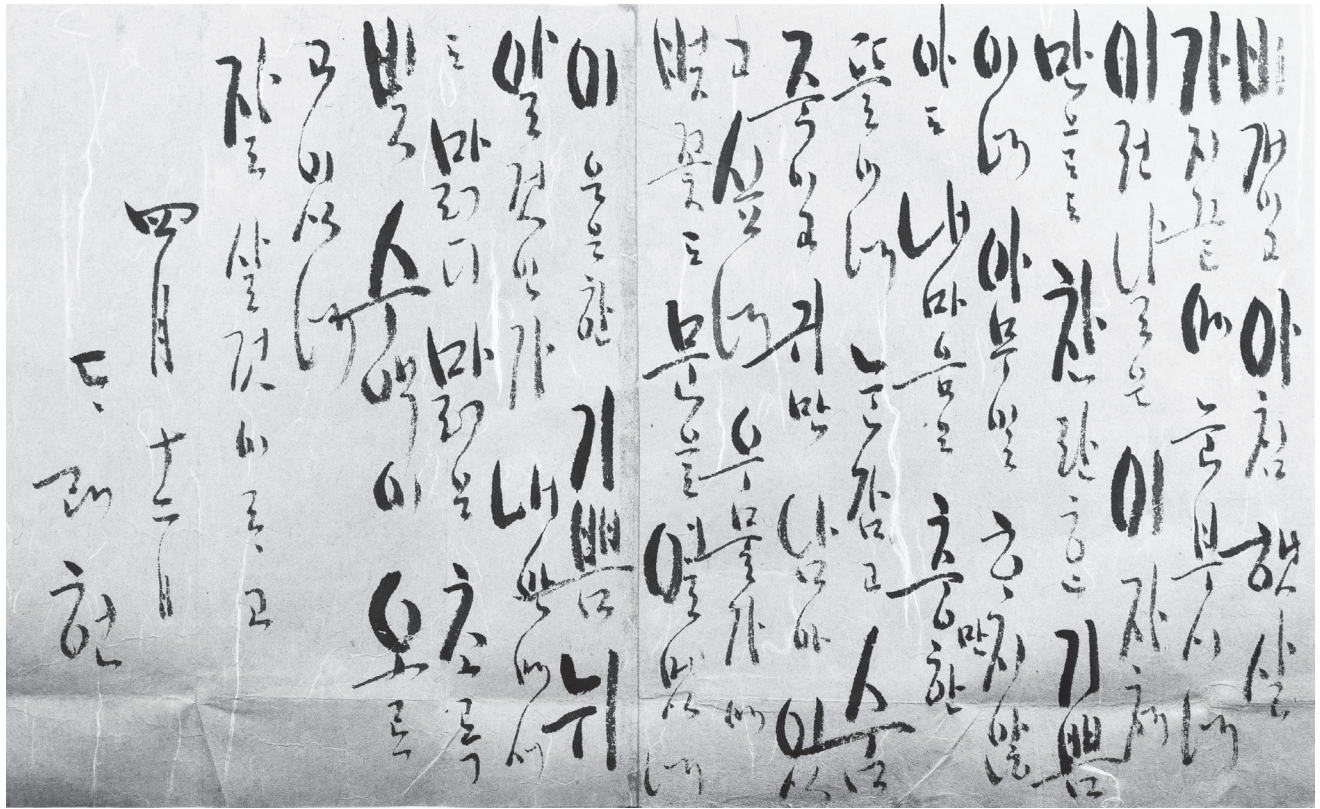
우리가 과거 축적된 세월, 잔뜩 쌓여 축적된 먼지 같은 것이 늘 떠올라옵니다. 한순간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라는 겁니다. 늘 이렇게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아주 고요하면서도 정신이 맑은 상태에 도달합니다. 명상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불교에서 업業이라고 할 때 신체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 입을 통해 말로 하는 것,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하는 것을 삼업三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에 깊은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생각은 우리 마음 밑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열매를 맺는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옳지 않은 씨앗이라면 옳지 않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따뜻한 마음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는 이웃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 세상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종교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곧 종교이고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따뜻한 마음과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는다면 종교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착한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서 꽃피울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꽃이 피어납니다. 팔만대장경이 합천 해인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고마운 선지식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2000년 3월 31일 법정 스님이 길상사 설법전 경전반 강에서 하신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2. 법정 스님 편지



비개이고 아침 햇살

가지 끝에 눈부시네

이런 날은 이 자체만으로도

찬란한 기쁨이네

아무일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충만한뜰이네

눈감고 숨죽이고 귀만 남아 있고 싶네

우물가에 벚꽃도 문을 열었네

이 은은한 기쁨 누알 것인가

내 안에서 또 맑디맑은

초록빛 수액이 오르고 있네

잘살 것이라고

4월 12일

다래현

* 이 편지는 법정 스님이 1973년 반야화남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방생에 대해서

옛그제는 때 아닌 눈보라가 훑날렸습니다. 옛말대로 춘설春雪이 분분紛紛했지요. 가지에서 움이 터오르다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도 속옷을 벗은 채 저자에 나갔다가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새봄이 오기까지는 늘 그렇듯이 이런 겨울의 뒤치다꺼리가 따라야 합니다.

봄이 되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약동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이름의 불사와 법회가 예년처럼 또 잇따를 것입니다. 그 숭한 행사들을 치르면서 그 일이 과연 법다운 일인지, 바람직한 일인지도 그때그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교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이고 자각의 길이라면, 우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행사 가운데서 방생放生을 한 예로 들어봅시다. 보나마나 올봄에도 방생이라는 행사가 잦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계율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지 말라든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 귀찮은 규제로 알기 쉽습니다. 물론 계율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타율적인 면이 훨씬 강합니다.

계율이란 말은 계戒와 율律로 이루어진 합성어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율은 일반 사회의 법률과 같아서 규제의 성격이 강함

니다. 자연스럽게 타율적일 수밖에 없지요. 사람은 완성된 인격이 아니므로 개인의 인격 형성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외부적인 규제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에 대비해서 계는 도덕과 같은 성격을 띠니다. 도덕도 우리를 규제하긴 하지만 그것은 타율적이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입니다. 계라는 말의 원래 뜻은 ‘습관성’을 말한 것인데, 좋은 일을 몸에 배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고 자기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길들여 몸에 배지 않으면 공허한 잣빛 이론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들의 행동양식은 순간순간 우리들이 살아 가는 삶의 내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은 타율적인 율의 성격이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로 바뀌면 자율적인 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같이 지키는 다섯 가지 계(五戒)의 의미는 무엇무엇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요, 맹서입니다.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서는 훌륭한 도덕입니다. 모든 생명은 원천적으로 모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그 생명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은 청정한 규범이요, 생명 가진 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극히 소극적인 염원입니다. 한결음 나아가 산목숨을 어떤 재난으로부터 살리고 간헐한 데서 놓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바탕인 사랑과 자유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방생은 불살생계不殺生戒의 적극적인 표현이요, 행위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도 많지만 죽게 될 목숨을 구원해 주는 일처럼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임종의 자리를 지켜본 사람들

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살고자 애쓰는가를.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얼마나 애타게 살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생의 원뜻은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입니다. 죽게 된 목숨을 생명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런 거룩한 뜻이 요근래에 와서는 엉뚱하게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뜻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시장에서 미꾸라지나 자라 몇 마리 사서 물에 넣어주는 행사로 만족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것도 봄가을에 한 차례씩 관광버스를 타고 시외로 놀러가는 야유회 비슷한 놀이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산목숨을 놀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계나 율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결과적으로 생명을 괴롭히는 위선이고 사회적으로도 규탄 받아야 할 일입니다.

몇 해 전 불일로 서울에 갔다가 뜻밖에 어떤 방생법회에 참례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대장 격으로 스님들이 두 차에 한 명꼴로 배당되었습니다. 행선지는 부여의 백마강. 서울에서 백마강까지 그 먼 길을 미꾸라지와 자라들은 팔자에도 없는 관광버스를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같은 사람 틈에 끼어 멀미를 앓아야 하는데 물고기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강가에 닿으니 4분의 1쯤은 죽어 있었습니다. 방생의 이름 아래 살생을 자행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웠던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듣기 거북하더라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기의 먹이는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비닐 주머니에 싸온 밥을, 모두 합하면 몇 말이나 될 그 밥을 강물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비닐봉지까지 넣어 강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곁에 서들 제지했지만, 극성스러운 할머니들은 신들린 사람처럼 중얼중얼 주문과 염불을 외면서 축원을 하느라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언급해야겠습니다. 40여 대의 관광버스가 소위 불자들을 태우고 방생법회를 하러 가는데 그 무질서란 실로 한심스러웠습니다. 옥산 휴게소에서 불일들 보라고 잠시 차가 멈추었습니다. 이때 무슨 난리라도 난 것처럼 일제히 앞을 다투어 변소로 뛰어가는데,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어디 이뿐인 줄 아십니까. 한꺼번에 변소로 몰려드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면 불구하고 그 둘레에다 마구 방뇨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법회에 참례한 많은 사람들의 행동양식이었습니다.

또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되지도 않는 노랫가락들을 고래고래 뽑아대는 바람에 멀미를 앓아야 했답니다. 이 무질서가 오늘날 한국 불교의 단면인가 싶으니 (설령 일부라 할지라도) 같은 불자의 처지에서 자책과 부끄러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교화하기 나름입니다. 스님들 자신이 부처님의 정법으로 교화하지 않고, 세속적인 물질주의와 기복祈福에 영합한 결과가 그날의 그런 광경을 노출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잘못 저질러진 이런 비리를 또한 우리 시대에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결코 방생 자체를 부정하거나 타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방생을 바로 고치자는 뜻에서 결례를 무릅쓰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절에서는 방생법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합니다. 회비를 미리 거둬 음식과 기념품을 준비해 가지고 교도소를 찾아가 한때의 잘못으로 옥고를 겪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조용히 위로한다고 합니다. 또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 그날 하루만이라도 외로운 이웃들에게 어머니와 며느리 노릇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방생법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절에서는 미리 연락을 한 뒤 일선으로 장병들을 위문 가는 그런 방생법회를 갖는다고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흐뭇하고 정겨운 일입니까.

굳이 공덕을 따진다면 고기 몇 마리 사 가지고 강으로 ‘야유회’를 가는 것보다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밤낮으로 전쟁 방지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동생과 아들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이 훨씬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바른 믿음의 터전 위에 바른 행이 따라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른 믿음과 행을 통해서 불성佛性을 일깨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향상의 길에 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쉬운 것 없이 두루 갖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의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불자가 되었다면 바른 법에 의지해서 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 봄에 있을 방생법회에는 방생의 근본 뜻을 되살려 우리들 자신 속에 스며든 비리부터 내보내야겠습니다.

정법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법을 행하면 바로 그때가 정법의 시대입니다. 1983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극복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193

걸거나 서고, 앉거나 눕고, 몸을 구부리거나 편다. 이것은 육체의 동작이다.

194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고 살과 살갗으로 덮여 있어,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다.

195

이 몸의 내부는 위와 장과 간, 방광, 심장, 폐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196

그리고 콧물, 침, 땀, 지방, 피, 관절액, 담즙, 기름 등이 있다.

197

또 이 몸의 아홉 구멍에서는 끊임없이 오물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

(*아홉 구멍은 양쪽 눈, 양쪽 귀, 양쪽 콧구멍, 입, 항문, 생식기를 가리킨다.)

198

코에서는 콧물, 입에서는 침과 가래, 그리고 온몸에서는 땀과 때가 나온다.

199

또 머릿속의 빈 곳[空洞]은 뇌수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에 이끌려서 이런 육신을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200

또 죽어서 쓰러졌을 때는 몸이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201

개나 여우, 늑대,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날짐승이 쪼아 먹는다.

202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자는, 깨달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203

‘저 죽은 시체도 얼마 전까지는 살아 있는 내 몸뚱이와 같은 것이었다. 살아 있는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은 저 시체처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고 안팎으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204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떠난 지혜로운 수행자는 죽지 않고, 평화롭고 멸하지 않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205

인간의 이 몸은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므로, 꽃이나 향으로 은폐되어 있다. 그렇지만 온갖 오물로 가득 차 있어 여기저기서 그것이 흘러나오고 있다.

206

이런 몸뚱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잘난 체하거나, 남을 무시한다면, 그는 눈먼 소경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193~206 강론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유행 음악보다 훨씬 마음을 즐겁고 순하게 다스려 준다. 흙과 나무들은 말이 없어도 생기에 차 있다. 발가벗은 나목의 숲에 안개가 서리니 뻑뻑해진 내 가슴에도 물기가 배어드는 것 같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는 강추위 속에 훑날리는 눈보라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고 촉촉하게 적셔 준다. 이리다가는 어디선가 매화와 동백이 꽃을 피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르겠다.

초기 불교가 분석적이라는 말은 그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다. 불타 석가모니는 세계와 인생에 대해서 투철한 관찰로써 있는 그대로를 보았고, 치밀한 분석으로써 대상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했다.

여기에서는 우리들 육신에 대해서 해부학적인 분석과 관찰을 시도하고 있다. 뼈와 힘줄로 얽어서 살갓으로 포장된 우리들 육신의 실상을 낱알이 해체하여 비정하리만큼 우리 앞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과 해체의 의도는, 이 육신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친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 우리는 가끔 묘지나 화장터에 따라가는 수가 있다. 평소 고인에 대한 삶의 자취를 되새기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어디까지나 ‘관객’의 입장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조문이나 관객의 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친구의 차례지만, 이 다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차례임을 알아야 한다.

* 다음 호에 193~206 강론이 이어집니다.

무상승無上勝 장자

선재동자는 대자大慈로 두루하는 마음과 대비大悲로 윤택하는 마음을 일으켜 끊이지 않고 복덕과 지혜 두 가지로 장엄했다. 모든 번뇌의 배를 버리고 법이 평등함을 증득해 마음에 높고 낮음이 없었으며, 착하지 못한 가시를 뽑아 장애를 없애고, 견고한 정진으로 담과 해자垓字를 삼고, 깊은 삼매로 정원을 만들었다. 지혜의 햇빛으로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고, 방편의 바람으로 지혜의 꽃을 피게 하며, 걸림 없는 서원이 법계에 충만하고, 마음은 항상 온갖 지혜의 성에 들어가 보살도를 구했다. 점점 남쪽으로 나아가 그 성에 이르러, 무상승 장자가 성의 동쪽 대장엄당大莊嚴堂 무우림無憂林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장자는 무수한 상인과 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끊어버리고 법을 설해 그들의 교만을 뽑고 ‘나’와 ‘내 것’을 여의게 했다. 쌓아둔 것을 버리고 아끼고 시새우는 때를 없애며, 마음에 청정을 얻어 더러움이 없고 깨끗이 믿는 힘을 얻어 항상 부처님을 뵈고 법을 받아 지니기를 좋아했다. 보살의 힘을 내고 보살의 행을 일으키며,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 보살의 지혜를 얻으며, 보살의 정념正念에 머물러 보살의 즐거움을 늘게 했다.

선재동자는 그 장자가 대중에게 설법하는 것을 보고, 그의 발에

엎드려 절을 하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선재올시다. 저는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행을 구합니다.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습니까. 닦고 배울 때 어떻게 모든 중생을 항상 가르치며, 부처님들을 항상 친견하며, 불법을 항상 들으며, 불법을 항상 지니며, 불법에 항상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모든 세계에 들어가 보살행을 배우며, 온갖 세월에 머물면서 보살도를 닦으며, 여래의 신통력을 알며, 모든 여래의 호념護念을 받으며, 여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장자가 선재에게 말했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가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구나. 나는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행문인 의지함 없고 지음 없는〔無依無作〕 신통력을 성취했다.

무엇을 가리켜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행문이라 하는가. 나는 이 삼천대천세계의 육계 모든 중생들, 이른바 삼십삼천三十三天, 수야마천須夜摩天, 도솔천兜率天, 선변화천善變化天,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마魔의 하늘과 그 밖에 모든 하늘, 용, 야차, 나찰, 구반다.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사非人的 마을과 성안과 도시의 모든 곳에 있는 중생들 가운데서 법을 설한다.

그리해서 그릇된 법을 버리게 하고, 논쟁을 쉬게 하고, 싸움을 없애게 하고, 성내는 일을 그치게 하고, 원한을 풀게 한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옥에서 나오게 하고, 두려움을 면하게 하고, 살생을 끊게 하고, 사견邪見과 악업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모두 금하게 한다.

착한 법을 순종해 행하게 하고, 기예技藝를 닦아 익히게 하고,

세간에서 이익을 얻게 하고, 그들이 여러 이론을 분별해 환희심을 내고 점점 성숙하게 한다. 외도를 수순해 뛰어난 지혜를 말하고, 모든 소견을 끊고 불법에 들어오게 하며, 색계의 범천에서도 그들에게 뛰어난 법을 말한다.

이 삼천대천세계에서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불찰미진수세계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불법과 보살법과 성문법과 독각법을 말하며, 지옥을 말하고 지옥 중생을 말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말하며, 축생을 말하고 축생의 차별을 말하고 축생이 받는 고통을 말하고 축생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염라왕의 세계를 말하고 염라왕 세계의 고통을 말하고 염라왕 세계로 가는 길을 말하며, 천상의 세계를 말하고 천상의 즐거움을 말하고 천상으로 가는 길을 말하며, 인간을 말하고 인간의 고통과 즐거움을 말하고 인간으로 가는 길을 말해, 보살의 공덕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

또 생사의 근심을 버리게 하고, 온갖 지혜를 가진 이의 미묘한 공덕을 알게 하며, 모든 세계에서 미혹으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을 알게 한다. 걸림 없는 법을 보게 하며, 모든 세상이 생기는 원인을 보이려고 하며, 세간의 고요한 즐거움을 나타내려 하며, 중생들에게 집착하는 생각을 버리게 한다. 부처의 의지함이 없는 법을 얻게 하며, 번뇌의 바퀴를 아주 없애게 하며, 여래의 법륜을 굴리게 하려고 나는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법을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모든 곳에 이르는 보살행의 청정법문과 의지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신통력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마하살들은 자재한 신통을 갖추고 부처님의 세계에 두루 다닌다. 보안普眼의 지위를 얻어 음성과 말을 들으며, 모든 법에 들어가 지혜가 자재하며, 다투는 일이 없고 용맹하기 짝이 없으며,

광장설로 평등한 음성을 낸다. 몸매가 훌륭해 보살들과 같으며, 여래와 더불어 구경究竟에 들어 있고 차별이 없으며, 지혜의 몸이 광대해 삼세三世에 두루 들어가며, 경계에 틈이 없어 허공과 같은 이런 일들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수나輸那라는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가릉가림迦陵伽林이다. 거기 사자빈신師子頻呻 비구니가 있으니, 그대는 그를 찾아가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길을 떠났다.

*삼십삼천三十三天 :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을 말함.

*수아마천須夜摩天 : 욕욕천六欲天的 제3천, 오욕락五欲樂을 받는다고 함. 하루는 인간계의 2백년에 해당하고, 2천 세를 산다고 함.

*도솔천兜率天 : 수미산 꼭대기에서 12만 유순由旬 되는 곳에 있는 천계天界로, 칠보七寶로 이루어진 궁전이 있고 한량없는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함.

*선변화천善變化天 : 신神들이 바라는 것을 만들어 내어 스스로 즐긴다고 함.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 욕계欲界의 가장 높은 데 있는 천천. 이 천곳은 남이 지은 즐거운 일을 자유로이 자기의 쾌락으로 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함.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

모든 꽃나무는
홀로 봄앓이하는 겨울
봉오리를 열어
자신의 봄이 되려고 하는

너의 전 생애는
안으로 꽃 피려는 노력과
바깥으로 꽃 피려는 노력
두 가지일 것이니

꽃이 필 때
그 꽃을 맨 먼저 보는 이는
꽃나무 자신

꽃샘추위에 시달린다면
너는 곧 꽃 필 것이다

중앙 모임 (02-741-4696)

■ 2024년 '맑고 향기롭게 5기 대학 장학생' 공모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를 선발하고자 2024년도 제5기 대학 장학생을 공모 접수합니다.

- **장학생 신청 자격** : 본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 **지원 금액** : 400만 원 (200만원 * 2회 분할 지급)
- **서류 접수** : 4월 15일(월) 우편 소인까지 접수
- *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남을 위해 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께서 불일암에 주석하실 때부터 주창하신 나눔 운동으로,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자는 취지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결연을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 부처님오신날 물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 '자비의 등'의 동참금은 1인 최소 10,000원 이상(등표에는 1명의 이름만 기재함)
- 후원금을 보내실 때 **입금자 이름 옆에 '자비'** 라고 써주세요.
- **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 2024년 숲기행 진행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2024년 숲기행은 법정 스님 인연 사찰 "옛 절을 찾아서"로 진행됩니다.(상반기 일정)

진행일	장 소	접수일
4월 27일(토)	경남 통영 미래사	4월 1일(월)
5월 25일(토)	경남 하동 쌍계사, 화엄사	5월 1일(수)
6월 22일(토)	경남 양산 통도사	6월 3일(월)

- **참가비** : 회원 45,000원, 비회원 60,000원
- **후원 회원의 할인 기준** :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소 3만원 이상 후원하신 분에 한해서 할인 혜택 제공
- * **접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 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 복지센터 1층 만발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정기 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 구 모 임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심리치료, 상담, 정서지원 운영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반찬 지원 활동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 경로 급식 및 웃음치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9시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청도 운문사 봉사활동 :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8시30분 집결후 이동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종료(자립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비정기 진행

● 난치병 환우 돕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함께' 운영(2층)

- 셀프 카페, 셀프 밥상, 공간 대여

● 법정 스님 문화관 운영(5층)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 등록 기관)

경 남 모 임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 주 모 임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02-3672-5945)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4월 6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삭 성취되는 영험한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관음재일

- 일시 : 4월 2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초하루기도

- 일시 : 4월 9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마가스님(자비명상 이사장) 초청 일요가족법회

- 일시 : 4월 21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설법전

보름기도

- 일시 : 4월 23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4월 26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부처님오신날 연등 공양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10만원
가족등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길상사 13기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1년 2학기제, 조계종인가 전문교육과정

- **입재식** : 3월 19일(화)
- **시 간** : 매주 화요일 13:30~15:30
- **장 소** : 설법전
- **자 격** : 불교 기본 입문 교육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 **인 원** : 정원 70명(선착순 모집)
- **동참금** : 40만원(교재비 별도)

강 사 스 님

남전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덕조 스님 길상사 주지스님	승범 스님 길상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이사리	일묵 스님 제따와나 선원장
불교입문	초발심자경문	부처님의 생애	초기불교의 이해 - 사성제
1강 3.26 ~ 4강 4.16	5강 4.23 ~ 8강 6.4 (휴강 4.30 5.14 5.21)	9강 6.11 ~ 12강 7.2	13강 7.9 ~ 16강 7.30
원철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무애 스님 전 해인사 승가대학 학장	마가 스님 자비명상 이사장	금강 스님 조계종 교육위원장
선어록	대승기신론	자비명상	불교수행론
17강 8.6 ~ 20강 8.27	21강 9.3 ~ 24강 10.1 (휴강 9.17)	25강 10.8 ~ 28강 10.29	29강 11.5 ~ 32강 11.26

길상사 46기 불교입문 수강생 모집

조계종인가 신도기본교육과정

- **개 강** : 3월 21일(목)
- **시 간** : 매주 목요일 13:30~15:30
- **장 소** : 설법전
- **자 격** : 불교에 관심있는 누구나
- **인 원** : 정원 70명(선착순 모집)
- **동참금** : 8만원(교재비 별도)

강 사 스 님

덕조 스님 길상사 주지스님	승범 스님 길상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이사리	남전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불교입문 - 불자예법	부처님의 생애	천수경·반야심경
1강 3.21 2강 3.28	3강 4.4 4강 4.11	5강 4.18 6강 4.25

- **접 수** : 전화 02-3672-5945
문자 010-3860-2383
메일 kilsangsa@hanmail.net
- **계 좌** : 신한 140-003-875653 (조계종 길상사)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나이스페이먼츠 시스템을 통해 후원자님의 신용카드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후원 방법을 신용카드 후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직접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회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회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할 때, 직접 본회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가입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각 지부를 선택하여 후원 등록하거나, 각 지부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각 지역 모임 후원 계좌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